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55:1-3	제2독서	로마서 8:35,37-39	복음	마태오 14:13-21
--------	------	-------------	------	----------------	----	--------------

◎말씀 < 그 많은 군중은 무엇에 배불렀을까? >

어릴 때 본당 수녀님이 선물해주신 돈보스코 신부님의 만화 전기 「요한아 뭘하니?」를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돈보스코 신부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펼쳐보게 된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 신부님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모아 <오라토리오>를 만드시고 동네 언덕에 있는 창고를 개조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머물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청소년들과 함께 놀고먹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여있는 아이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빵 몇 개가 있었는데 신부님은 그 빵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빵은 남았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 청소년들이 그 작은 빵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신부님 눈치를 보고 배부르지 않은데 먹고 배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빵을 나눠

먹을 때 이미 다른 것을 먹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상상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신학생 때 돈보스코 신부님의 전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 궁금증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라토리오 청소년들은 돈보스코 신부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겪은 육적인 허기짐은 사실 그들에게 큰 결핍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작은 양이었지만 빵을 나누는 행위 자체에 영적인 배부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육로로 뒤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 때문에 그런 힘듦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그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끼니도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에서 군중이 먼저 배고픔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이 당신과 제자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을 배고픔이라고 보시고 빵 나눔을 통해 그들을 사랑으로 배를 불리신 것은 아닐까요?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8월4일(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교무금	\$ 3,810.00
			주일헌금	\$ 586.00
8월5일(수)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 200.00
			성소후원	\$ 155.00
8월6일(목)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사회복지	\$ 105.00
			성물방	\$ 0.00
8월7일(금)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2,201.00
8월8일(토)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합 계	\$ 7,057.00
8월9일(일)	연중 제19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4명
교무금 봉헌자	최정신(8-9월)김기상(6-9월)박종윤(7-8월)임원호(6-8월)김창영(3-7월)안선미(5-6월)안기창(7월) 김계숙.김승제.박용호.김영숙(8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미사와 신자생활

미사의 핵심적 의미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라는 빵 말씀과 “이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라는 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린다는 말은 성서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희생을 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후만찬 중에 당신 몸과 피를 바치는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부터 수난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시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온전한 바침과 비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45),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5)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느님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는 생명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를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해야 하는지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성찬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헌신과 희생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이곳을 돌아보고 가엾이 여기는 선한 실천, 곧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비워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성찬은 스스로를 ‘내 어주고 쏟은’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만을 보는 협소한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갑니다.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져 하느님의 생명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갑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 것을 바라면서 함께 계십니다.

주일미사 때 미사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형제의 신앙을 통해서 확증을 체험하고 성찬을 통해서 인간 성숙과 쇠신을 체험합니다. 주일미사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내적 힘의 소모와 마멸에 대한 평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섬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5일 혹은 6일간의 긴장, 노동, 그리고 외향성에 비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 주간 168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위한 최저 생활로 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빵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식이 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향자.글라라의 영원한 안식	안나회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장호길.비안네 영육건강	정의의모후
			생	김평옥.모니카, 줄, 썬, 마이클의 영육건강	이나숙.데레사

간 장 종 지	◎사랑의 기적◎	
	당신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두 손에 받들면 이해와 나눔과 어여빠여김이 온 강산에 번져	허망하고 차가운 계산 속, 세상의 날은 가고 사랑의 힘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었네 마중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실외미사로 인한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성당서편 정자)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실외미사 집전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분은
우편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 4.첫영성체 대상자 첫고해
일시;16일(일)오전9시30분.고해실
- 5.첫영성체식
일시;16일(일)오전10시.축하해주세요.
교리 수고해주신 장선영선생님께 감사드려요
- 6.성모승천대축일 미사안내
일시;8월15일(토)오전10시.실외미사

- 7.교구2차헌금
일시:9일(일)오전10시
목적:Church in Latin America
- 8.신자 주소록
신자 주소록을 새로 마련하고자합니다.
새 주소록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사오니
누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분은
구역장에게 연락해주세요.(8월16일까지)
- 9.감사합니다
김승제:감사헌금(\$100)
10.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전례봉사	연중제18주일(8월2일)	연중제19주일(8월9일)	연중제20주일(8월16일)	연중제20주일(8월23일)
해설				
복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준우.루카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